

지난해 전남지역 열대야 일수 여수·목포 '최다'

전남 분석...최근 20년 평균 기온 광양이 가장 높아 온열질환자 63.5% 50세 이상...도심 녹지대 확충 필요

지난해 7-8월 전남지역에서 열대야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해안가인 여수와 목포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양시는 같은 기간 평균 기온 26.4도로 전남 22개 시·군 중에서 가장 더운 지역으로 조사됐다.

22일 전남연구원의 JN1 인포그래픽 '요즘 핫(Hot)한 전남'에 따르면 지난해 밤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인 열대야 일수는 여수시 23일, 목포시 22일 순으로 해안 지역의 열대야가 많았다. 또한 하루 최고 기온이 30도 이상인

열대야 일수의 경우 담양군과 곡성군이 각각 68일로 내륙 지역의 낮 기온이 더 높았다. 이번엔 발간된 전남연구원의 인포그래픽은 기상청의 종관기상관측(A-SOS) 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1994-2023년 30년간 우리나라의 7-8월 평균 기온 및 온열질환자 발생 현황을 시각화했다. 지난 30년간 전국의 7-8월 평균 기온은 25.5도였으며 전남은 25.6도로 전국

평균과 비슷한 수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2004년 이후 전국 평균 기온은 웃도는 해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 30년간 관측된 전남의 최고 기온은 1994년 7월21일 장흥관측소의 38.7도였으며 지난해 전남의 최고 기온은 36도로 8월5일 해남관측소에서 관측됐다. 이와 함께 전남 22개 시·군의 평균 기온을 방재기상관측(AWS) 데이터로 분석한 결과, 2004-2023년 7-8월 평균 기

온이 가장 높은 곳은 광양시로 26.4도다. 반면, 평균 기온이 가장 낮은 곳은 장흥군(25.3도)이었다. 지난해 전남의 온열질환자 발생 건수는 222건(남성 74.8%, 여성 25.2%)으로 이 중 63.5%가 '50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온열질환자가 발생한 장소는 실외(82.9%)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작업장 77건(41.8%), 논·밭 54건(29.3%) 등이 대다수였으며, '실내(17.1%)'의 경우 작업장

10건(26.3%), 집 9건(23.7%), 비닐하우스 9건(23.7%) 등이었다. 김현희 부연구위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극단적인 폭염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도심지의 경우 도로 물 뿌리기와 햇빛 가림막 추가 설치, 중장기적인 가로수 정비를 통한 녹지대 확충이 필요하다"며 "농촌지역은 고령자 대상 시간휴식제 운영 등 폭염 대비 교육과 홍보, 마을회관 등 공공장소 쉼터의 확대·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정기자

"부르면 갑니다"...'광주투어버스' 운행 시작

AI 기반 수요응답형 앱으로 호출...오늘부터 주요 관광지 운행

이용객이 원하는 정류장에서 앱으로 호출하면 버스가 찾아오는 '광주투어버스'(사진)가 운행을 시작한다.

광주시는 22일 "23일부터 '부르면 갑니다' 광주투어버스' 앱을 출시하고 수요응답형(DRT) 광주투어버스를 함께 운영한다"고 밝혔다.

오는 12월13일까지 운행 예정인 광주투어버스는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적용 관광형 버스로 이용객의 다양한 호출에 따라 AI 기술을 활용해 최적 경로를 실시간 생성한 후 노선을 탄력적으로 운행한다.

이용객은 앱으로 승차할 정류장에서 탑승 인원을 선택해 광주투어버스를 호출한 뒤 가고 싶은 목적지와 가까운 정류장에 내리면 된다.

정류장은 광주 주요 관광지인 ▲비엔날레 전시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양림오거리 ▲사직전망대 ▲광주송정역 ▲광주공항 ▲유스퀘어 터미널을 중심으로 운행한다. 운행 시간은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1회권 탑승 요금은 성인 1천700원, 청소년 1천300원, 어린이 800원이다. 탑승 후 단말기 태그를 통해 결제하면 되고 시내버스, 지하철 환승도 가능하다. 이동이 잦은 관광객을 위한 1일권 패

스도 판매한다. 이용 요금은 1인 3천원으로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구입할 수 있고 24시간 동안 무제한 탑승이 가능하다. 다만, 1회권과 달리 다른 대중교통 수단과 환승은 불가하다.

광주투어버스의 최대 장점은 편리성이다.

AI를 적용해 이용객의 대기 시간을 평균 2시간에서 평균 30분으로 줄였다. 또 차량 크기를 45인승에서 15인승으로 축소해 대형버스로는 진입이 어려웠던 양림동의 관광 접근성을 크게 높였다. 외국인 관광객이나 스마트폰이 사용이 서툰 이용객을 위해 앱 외에 전화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광주투어버스 앱은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문화관광 홈페이지 광주투어버스(tour.gwangju.go.kr)과 관광관광공사 대표 누리집(www.gito.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성기기자

전남도 총괄건축가에 최일前 동신대 총장

공공가치·지역특색 반영한 도시공간 자문 역할

전남도는 22일 제3대 전남도 총괄건축가로 최일(사진) 전 동신대학교 총장을 위촉했다.

전남도는 2020년부터 공공건축물과 도시환경의 공공적 가치 구현, 지역 특성을 반영한 디자인 품격 향상을 위해 총괄 및 공공건축가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최일 총괄건축가는 학식과 실무 역



량을 모두 겸비한 도시·건축 전문가로 앞으로 2년간 전남도의 도시·건축·공간환경 디자인 관련 정책 수립에 대한 자문과 공공건축물, 공간환경, 디자인 향상을 위한 총괄조정, 자문 등 역할을 한다.

전남도는 건축·도시 디자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공공건축물의 품격 향상을 위해 건축·조경·도시 등의 민간전문가를 공공건축가로 위촉해 기획, 설계 뿐만 아니라, 공사 전 과정에 대한 자문과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다.

김영록 지사는 "최일 총장의 풍부한 경험과 탁월한 안목이 전남 공공건축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전남의 건축문화를 한 단계 높이고 지역 특색에 맞는 건축물을 조성해 전남의 가치를 높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양시원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에 입장을 밝힌 뒤 청사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총장, 김여사 조사에 "원칙 안 지켜져"

"어떠한 보고도 받지 못해...모두 제 책임 국민께 사과"

이원석 검찰총장은 22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것은 원칙을 어긴 일이라며 사과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에 "우리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씀드렸으나 대통령 부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국민들과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선 검찰청에서 어떠한 보고도 받지 못했지만 일선 검찰청을 제대로 이끌지 못한 것도 모두 제 책임"이라며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김 여사 조사 과정에서 검찰총장이 사실상 '패싱' 당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일각에서는 이 총장이 사의를 표할 가능성도 점쳐졌다.

그러나 이 총장은 "2년 2개월이나 검찰총장 역할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무슨 여한이 있고 무슨 미련이 남아 있겠느냐"면서 "헌법 원칙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것이 부족하다면 그때 제 거취에 대해 판단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 경위를 보고받았다.

이 지검장은 이날 오전 이 총장을 찾아 대검찰청에 사전 보고 없이 도이치모터스 추가조작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를 조사한 경위를 설명했다.

이 총장은 김 여사를 검찰청사가 아닌 대통령 경호처가 관리하는 부속 청사에서 조사한 점에 대해서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은 이 총장의 수사 지휘권이 배제된 도이치모터스 추가조작 의혹 조사가 끝난 뒤 명품가방 수수 의혹 조사가 시작되며 보고가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사정 등을 설명하면서 여러 차례 사과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총장은 보고받은 후 대검 검찰부에 진상 파악 지시를 내렸다. /연합뉴스

광주매일신문

"좋은 生活사랑받는 廣告인내"

가장 알뜰하게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광주 매일신문 廣告. 사랑받는 廣告로 마음과 마음의 만남을 소중하게 이어 드립니다.

광고문의 및 출점접수

▶ 광고국/☎ 650-2099
650-2071~2
F. 650-2016

▶ 시내지국 및 각 지방지사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합의) 판결공시

제1심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2022고합18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정용수 위 피고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기소되었으나 증거없음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4. 7. 19. 판사 고상영

멋진 바닷가 해안도로에 접한 소액투자매물 신안군 압해읍 매화리산261외4필지 13,000㎡ 평당3만원 총가 1억2,800

=====
곡성 국도변 계획관리등 과수원 70,000㎡
 चे리, 단감나무농장, 전시, 수도, 관리사있음
 광주에서 20분대 전원마을, 공장등 최적
 급매 14억7,000(조정가)
 =====

월세많은(110%)돈당이 부동산
 동신대옆 대지3,467㎡ 원룸건물3동, 관리1동
 (1층점포2칸, 2층아파트형 주택150㎡ 주인거주)
 2023.6월울수리 급처분 13억5,000
 (현재 보3,000 월1,460만원 받고있음)

부실채권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이 보입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가 함께 합니다

외상대금	돈	빌려준돈
공사대금		투자금
장비대금		약정금
전세금		임대료
부도어음		구상금

받아 드립니다

회사분할 및 채권자의제출공고

주식회사 대아건설(“분할회사”)은 2024년 7월 19일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상법 제30조의 2 이항에서 규정하는 회사분할의 절차에 따라 토목건축공사인부분을 물적분할하여 주식회사 대아건설(“분할신설회사”)을 설립하고, 분할 전 회사는 주식회사 대아홀딩스(“분할 존속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여 존속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법 제27조의 5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 분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아래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

(1) 분할(영도)대상 : 토목건축공사업(등록번호: 999)
 (2) 분할(영도)예정일 : 2024년 8월 31일
 (3) 분할(영도)회사 : 주식회사 대아건설(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대아홀딩스)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자치성로 48, 309호 대표이사 : 고혁주, 김시중
 (4) 분할신설(영수)회사 : 주식회사 대아건설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자치성로 48, 309호 대표이사 : 고혁주, 김시중
 (5) 의견제출
 1) 기간 : 2024년 7월 23일부터 2024년 8월 22일까지
 2) 장소 :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81, 대아빌딩 5층

2024년 7월 23일
 주식회사 대아건설
 대표이사 고혁주, 김시중

대명OA

취/급/품/목

- 복사기
- 컴퓨터
- FAX
- 레이저 및 잉크젯 프린터
- 전산소모품
- 레이저(토너/드럼)
- 카드리지
- 각종 잉크류
- 복사용지
- 팩스용지
- 판매
- 임대
- A/S

T.375-5880

금히구합니다 = 조건맞으면 바로 계약합니다

상가빌딩, 상가주택, 모텔, 가든, 나대지
 야영장, 창고부지, 물류센터부지 등등 찾고있습니다.

[급여전문] **즐거운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대표 유재관 010-6495-3787
 광주 북구 임동480 NH주공아파트 옆 동운고가입구
 등록번호 북구29170-2019-00097

선수금, 조사비 받는 회사가 좋을까요?
 돈도 못 받고 있는데...
 당사는 선수금 조사비가 없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특수채권팀은
 호남지역은 물론 전국을 무대로 그동안 쌓인 다양한 노하우와 뛰어난 정보력, 성실함으로 회수가 힘든 채권, 법인채권, 상거래채권 등을 위임받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신속한 채권회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못 받은 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지금 연락 주세요!!
010-5679-0990, 062)714-2846